

“남·북·러 11월 가스관 실무 협상”

홍준표 “시베리아철도 사업도 구체화... 남북관계 새 지평”

국내 천연가스 20~30% 싸질 듯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남북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인천 ‘한나라 인천 포럼’ 및 강원도 홍천 당원연수회 특강에서 “가스관 사업이 한·러시아 간에 합의됐고 북·러 간에도 합의돼 이제 3자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하면 남북가스관 사업은 이뤄진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협상에 언급, “실무자라는 것은 한국가스공사나 정부 당국자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최고경영자)를 할 때부터 꿈꾸던 사업이 이제 완성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남북 가스관 사업을 밀며 추진해 왔고,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개인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또 “11월쯤 되면 러시아 연해주와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을 거쳐 동해 지역으로 내려온다. 대공사가 시작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가스관 통과비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이익급보다 많은 연간 1억

달러 정도 되며, 우리는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면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20~30% 싸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스관 사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으며, 일단 북한이 문을 열면 개대 중 정부 시절부터 10년 구상으로 추진해 온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북한 경제도 현대화 사업에 25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부담하는 문제가 논의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는 ‘쓰리 트랙’으로 움직인다”면서 “첫 번째는

북핵을 6차회담에서 풀자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문제로 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뤄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인도적 지원과 경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 고칠 수 없지만 세 번째 트랙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인도적 지원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핵더독이란 말이 있듯이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새 총리 노다, 주중 새 내각 발족

민주당 요직인사 단행 후 조각 착수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 민주당 대표가 제95대 총리에 지명됐다.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30일 오후 각각 본회의를 열고 노다 지명선거를 거쳐 노다 민주당 대표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노다 대표는 이날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투표수 476표 중 과반수(239표)를 훌쩍 넘는 308표를 얻었다. 일본 헌법상 중의원에서 총리로 지명되면 참의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총리가 된다.

노다 총리 지명자는 간사장 등 민주당의 핵심 인사를 단행한 후 본격적

인 조각에 착수해 급중중 새 내각을 발족할 방침이다.

반(反) 오자와 그룹에 속하는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최대 세력을 거느린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과 대립했으나 이번 당직 개편과 조각에서는 오자와 그룹을 배려하는 균형과 중립 인사를 통해 당의 단합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그는 29일 당 대표 취임 연설에서 탈(脫) 오자와 노선의 궤도를 수정해 어느 파벌에도 치우치지 않는 ‘노 사이드(NO SIDE)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다 총리 지명자는 이런 약속을

관철하기 위해 오자와의 측근인 고시이시 아즈마(與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에 정권의 2인자인 당 간사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자신을 밀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내각에서 중용할 방침이다. 오카다 간사장은 관방장관과 재무상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은 민주당 정조회장 후보로 이름이 올랐다. 한편, 간 나오토 내각은 이날 오전 마지막 각의를 열고 총사퇴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 지명자가 총리에 취임해 내각을 발족할 때까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간 내각이 ‘직무집행내각’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북주민 남한내 가족 재산 상속 가능·반출 엄격 제한

북한 주민이 원칙적으로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重婚)이 성립하지 않으나 이혼(離婚)을 취소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특례법 제정안을 제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한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했다.

상속자분은 남한 내 가족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줘 남북 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했다. 이후 재산변동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생계유지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주여성 추석 명절 체험'에 참여한 이주여성들과 새마을 부녀회원 등 70여 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송편을 빚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근혜 정국현안 침묵은 지도자 자격 상실”

김정길 전 장관 비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김정길 전 행정부장관은 30일 “정국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질책탄을 날려 주먹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수통골에서 지지모임인 ‘길벗산악회’ 회원들과 산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민주당 대권후

보 도전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정권 창출에 일조한 인사인 만큼 (현)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너는 망해라. 나는 다음 대선 성공해서 할 테니”라는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표 대세론과 관련, “박 전 대표가 현재 30%대 지지

율을 보이고 있지만 (표)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이 있고 있지만 본선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낮은 지지율에 대해 “저의 단점은 인지도가 낮은 것이지만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아권후보 중 상위권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다 “A급 전범 문제 정부 해석 따르겠다”

최근 ‘A급 전범은 더는 전범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지명자가 “정부 답변(해석)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 지명자는 민주당 대표 경선 직전인 28일 A급 전범과 관련해 “(2005년에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에는) 한가지 법적 해석에 근거해 (정부에) 확인한 것”이라며 “나는 (지금은) 정부의 입장인 만큼 정부 답변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앞서 노다 총리 지명자는 야당의원이던 2005년 10월17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한국·중국 의 반발을 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에게 “A급

전범이나 B,C급 전범은 사면돼 석방됐고, 형법이 끝난 시점에서 수형자의 죄는 소멸되는 근대법의 이념 등에 비춰볼 때 A급 전범은 더는 전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A급 전범은 전범법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노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서도 “우리나라(일본)는 어찌 됐든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에 따른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를 수락한 만큼 이의를 제기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명기했다. /연합뉴스

카다피 어디 숨었나... 행방 오리무중

가족 일부 육로로 인접국 알제리 입국 확인 美·伊 언론 “리비아 머물러”... 결사항전 관심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그가 수차례 공언한대로 결사항전을 실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다피의 가족 일부는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알제리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 카다피 본인과 나머지 아들들의 행방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백악관과 이탈리아 언론 등을 통해 그가 아직 리비아 국내에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카다피가 리비아를 떠났다는 아무런 징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안사(ANSA) 통신은 권위 있는 리비아 외교소식통을 인용, 카다피와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과 사디가 수도 트리폴리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바니 왈리드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반군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추적을 피해 도주중인 카다피가 아직 리비아를 떠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바니 왈리드는 트리폴리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 사이에 있는 곳으로 카다피가 시르테행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잠시 몸을 숨기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실제로 카다피군은 관세를 뒤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시르테로 진입하는 길목과 남서부 도시 세바, 바니 왈리드 등에서 반군과 교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세바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패주한 카다피 잔당이 가세함에 따라 오히려 반군이 실탄 부족 등으로 고전하는 상황이라고 반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카다피가 여전히 충성을 맹세하는 친위부대를 독려하면서 최후의 사투를 벌일 것인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카다피는 트리폴리의 바브 알-아지자 요새를 빼앗기고 도망친 뒤에도 수차례 방송에 출연,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순교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의지를 불태웠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지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사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사들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T. 222-2902, 3973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신도불이 6년근 홍삼의 놀랍고 새로운 대발견 **평화발효홍삼**

속삭임이 선물세트 특별세일 | 단체 주문환영

▶천지홍 산수유 30포 35,000원 ▶천지홍 홍삼전액 골드 30포 45,000원 ▶천지홍 홍삼전액 골드 30포 60,000원 ▶평화 홍삼전액 120g 5봉 240,000원

일반 홍삼과 발효 홍삼은 100% 다르다. 일반 홍삼은 콩이고 발효 홍삼은 된장이다.

평화 발효홍삼이란? 평화발효홍삼은 인류의 명약이라고 알려진 고려홍삼을 제재식 가마에서 특수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파평(평뚜기) 처리하여 완전한 명품으로 일반 홍삼 제품보다 유익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증량되었고 종전 홍삼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30%인 반면 저희가 기술 개발한 평화발효홍삼은 체내에 100% 흡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감기가 자주 오고 오래가는 분
- 설사와 변비가 잦은 분(정내 미생물 부족)
-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한 분
- 면역력이 약하신 분
-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피부가 거칠고 부스럼이 잘 나시는 분

평화발효홍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당뇨완화 | 신경계 장애 | 피부탄력 노화방지 | 각종 피부질환 개선
- 세포부활 작용 | 비만제거 개선 | 간기능 개선 | 혈압강하 작용
- 소화작용 | 항 콜레스테롤 작용 | 항 경락작용항암 작용 | 해독작용 및 증진작용

무료 상담전화 062-262-5375 (무로출장 상담가능) 010-6770-4488 · 010-6773-1283